

**NATO** 는 현재 서로 얽혀있는 3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일은 中東에서의 위기상황으로 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기통제도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 관리들은 어렵פות이 보이는 시간 계획하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재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주어진 시간내에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이라크와의 분쟁이 북대서양조약의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토는 여기에 동맹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 분쟁이 말 그대로 나토의 경제지역에서 일어났으며, 회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NATO의 「영역외(Out-of-Area)」 문제라고 일컬었다.

실제로 1주일도 지나기 전에 북태평양협의회에서 회동한 나토 외무장관들은 각국의 조치와 계획에 관해 토의하였다. 브뤼셀에 있는 상임관리들도 매일 만나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별 세부활동사항을 교환하였다.

미국은 즉각 위협을 인지하고 분쟁에 개입하였다. 나토 우방국으로부터의 지원은 신속하였고,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미국이 함정, 항공기 및 병력을 투입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도 상당한 군사적 기여를 하였다.

다른 많은 우방국들도 주로 함정, 군수지원, 기지 사용, 영공통과 허가등 가능한 수단으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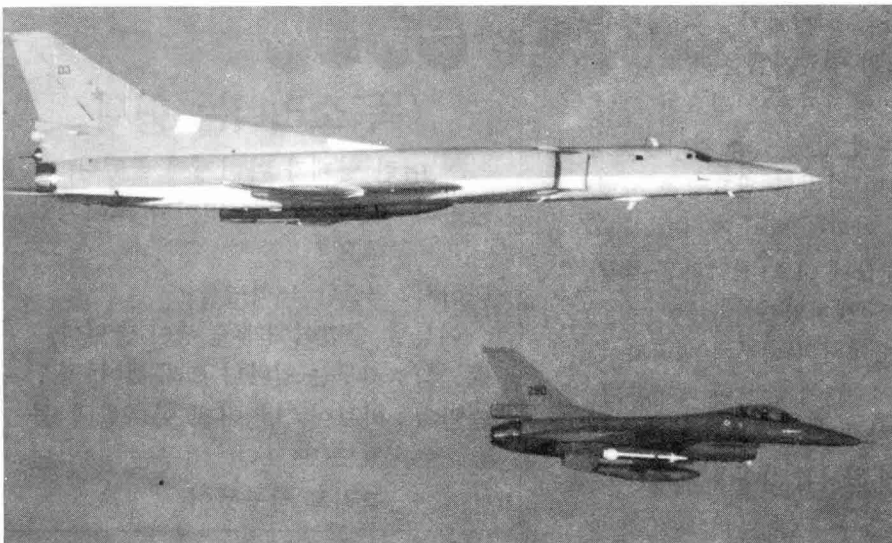
전방에 위치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금융상의 지원조치도 강구되었다. 특히 터어키는 노출이 가장 큰 회원국으로, 이미 무역과 원유공급상의 애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집트와 요르단도 나토 국가는 아니지만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요르단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피난민들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은 발발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될수록 경제적인 면과 위협면에서 비용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이 지출하고 있다.

결과는 불확실하며, 나토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치 않다. 나타난 결속력은 긍정적이지만 자체적인 깃발아래 공동행동을 취할 능력이 없는 것은 좌절이었다.

회원국들은 어떤 방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사태를 종결짓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잘된다면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련이 순수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육상배치 해군 항공을 협정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1천5백 내지 2천대의 고성능 항공기(주로 Backfire 폭격기, 사진(上))가 세력균형에서 제외되게 되며, 서방측으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한편 단기기간의 중단후에, 무기통제대표단들은 유럽내 재래식무기 감축 협상(CFE)을 재개하기 위해 8월 24일 비엔나에 모였다. 그들도 올해 35개국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에서 CFE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다.

정상회담은 우선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조치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예정에 없이 중단되었던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서방측의 對 소련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초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몇몇은 그 이후 새로 나타나고 있다. 최초의 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이 순수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육상배치 해군항공을 협정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천5백내지, 2천대의 고성능 항공기-주로 Backfire 폭격기-가 세력균형에서 제외되게 되며, 서방측으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또 검증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여기에 협정에서 금지한 장비의 파괴검증도 추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1989년초 협상이 개시된 이래 국제관계에서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애초의 가정들이 더이상 소용없게 된 사실이다.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군사적 블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뿐 아니라 그 일원이었던 동독이 10월 3일자로 해체되어버린 것이다.

통독(統獨)이후 동독군 병력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하는 「집단부대」의 합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소련과 서독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여 전 독일병력을 37만으로 제한하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전 소련군을 3년반 이내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랬을때 일례로, 총족 규칙-이로인해 어느 한쪽도 이 지역내에서 특정장비의 30% 이상을 보유할수 없는-이 어떻게 적절히 적용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협상담당자들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추진력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그들은 11월의 CSCE정상회담에 맞추어 수락가능한 문서를 작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브뤼셀의 본부도 바쁘게 돌고 있다. 7월에 있는 런던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NATO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1년내 종료될 것이며, 기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구조를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핵전력은 「최후의 의존무기」가 될 것이며, 재래식전력은 축소되고, 기동성을 높이며, 다용도의 다국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기는 재배치될 것이며, 「전방방어」 개념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CFE추진사항도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의된 감축사항은 회원국별로 할당되어, 공동의 전체적인 한도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들의 별도 행동이 공동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정기능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눈앞의 문제는 12월 국방계획위원회 장관회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연례 국방 검토사항이다. 여기에서는 각국이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진행시킬수 있도록 각국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관리들은 아직 소련이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토내에는 공동방위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믿을수 있는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달성해야 할일은 많고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간다. 16개 독립주권국 연합의 재원지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하나 희망적인 사항은 나토가 창설 이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금까지는 항상 깃발을 드높여 난관을 극복해 왔다는 점이다.(煥)

〈Miltch 90/10〉